

COVER STORY | 프로야구 10구단 감독들의 애마는? ▶ 1·2면

1억짜리 EQ900 대세...최고급 세단 '기 싸움'

삼성 김한수 감독
코치시절 타던 벤츠대신 구단이 제공한 제네시스 EQ900 사용.

두산 김태형 감독
작년까지 제네시스 G380 타다 올해부터 EQ900으로.

LG 양상문 감독
서울 라이벌 양상문 감독의 차도 EQ900.

넥센 장정석 감독
염경엽 전감독이 타던 제네시스 EQ900 사용.

NC 김경문 감독
2012년 그랜저HG 에서 제네시스 EQ900 으로.

kt 김진욱 감독
두산시절엔 레인지로버 운전. kt에선 제네시스 EQ900.

한화 김성근 감독
취임때 타던 에쿠스 사용. 감독 중 유일하게 운전기사 포함.

SK 힐만 감독
그랜저IG 운전.

KIA 김기태 감독
자사 브랜드 중 최고급 세단인 K9.

롯데 조원우 감독
그랜저 HG모델 사용.

10명 모두 구단에서 제공하는 세단 사용
삼성 두산 LG NC kt 넥센 감독 EQ900
무면허 김성근감독만 유일하게 기사까지

실용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자동차는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상징한다. 대한민국에 단 10명밖에 없는 프로야구 감독들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

KBO리그 10명의 감독들은 모두 구단이 제공하는 세단을 타고 있다. 그러나 차종은 팀마다 조금씩 다르다. 차종에 따라 감독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주관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2012시즌 종료 후 삼성은 류중일 감독의 자동차를 চে어맨에서 최고급 사양 풀 옵션 에쿠스로 교체했다.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의 공이 반영된 결정이었다. 특히 당시 삼성그룹은 임원 중 전무급이 체어맨을, 사장급은 에쿠스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룹 안팎에서는 삼성이 야구단 감독을 계열사 사장급으로 예우한다며 화제가 됐다. 이후 다른 구단들의 감독 차량도 전무급에서 사장급으로 연이어 바뀌는 유행이 시작됐다.

김한수 삼성 감독은 코치시절 벤츠가 애마였지만 지난시즌 종료 후 사령탑에 오른 뒤 구단이 제공하는 제네시스 EQ900 신차를 몰고 있다. 에쿠스의 후속 브랜드인 제네시스 EQ900은 1억1000만원 상당의 대형 세단으로, 국내 승용차 중 최고급 차종으로 꼽힌다. KBO리그 감독 중 상당수가 지난해 출시된 제네시스 EQ900으로 차가 바뀌었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지난해까지 제네시스 G380을 탔지만 올해부터 구단이 EQ900을 새롭게 제공했다. 서울 라이벌 LG 양상문 감독의 차도 EQ

프로야구 감독들의 현역 시절 포지션 분포			그래픽으로 보는 프로야구 10개구단 감독		
포지션	감독		항목	수치	최고
투수(3명)	김성근·양상문·김진욱	평균연령	53.5세	김성근(75세)	장정석(44세)
포수(2명)	김태형·김경문	평균연봉	3억6200만원	힐만(60만달러·약6억7000만원)	조원우·김한수·장정석(2억원)
내야수(3명)	김기태·힐만·김한수	평균연차	5.8년차	김성근(22년차)	힐만·김한수·장정석(1년차)
외야수(2명)	조원우·장정석				

900이다.

넥센 장정석 감독의 제네시스 EQ900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다. 2016시즌 초 넥센은 염경엽 감독의 자동차를 에쿠스에서 풀 옵션 제네시스 EQ900으로 변경했다. 당시 구단이 차 소유권까지 감독에게 선물했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지만 법인이 계약한 리스 차량이다. 염 감독이 넥센을 떠나면서 장 감독이 최신형 EQ900을 몰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SK 염경엽 단장의 차는 무엇일까? 특이하게도 구단이 고용한 운전기사와 있지만 법인 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의 벤츠를 타고 있다.

2012년 NO에 취임했을 때 그랜저HG를 받았던 김경문 감독도 계속 차종이 진화해 현재 제네시스 EQ900을 직접 운전한다.

김진욱 kt감독은 두산 사령탑 시절 최고급 SUV인 레인지로버를 손수 운전했다. '원하는 차를 제공하겠다'는 구단에 김 감독이 선택한 차종이었다. kt에서는 구단이 제공한 최신형 제네시스 EQ900을 몰고 있다.

김응용 전 감독에게 오퍼러스를 제공하던 한화는 2015시즌 취임한 김성근 감독에게 당시 최고급 모델이던 에쿠스를 지원했다. EQ900출시와 함께 상당수 감독이 에쿠스에서 EQ900으로 같이됐지만 김 감독의 차는 변함이 없다. 나머지 9개 팀과 다른 점은 김 감독은 유일하게 구단이 고용한 전담 운전기사가 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김 감독은 고양 원더스 감독 시절에도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

SK와 롯데는 타 구단의 변화와 달리 감독에게 모기업 사장급 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SK 트레이 힐만 감독은 그랜저IG를 타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감독들보다 배기량 등에서 한 단계 낮은 사양의 차지만 최근 출시된 최신형 인기 모델이다. 롯데 조원우 감독도 그랜저를 타고 있지만 최신형 IG가 아닌 HG 모델이다.

글로벌 자동차회사가 모기업인 KIA는 자사 브랜드 중 최고급 세단인 K9을 김기태 감독에게 제공하고 있다. KIA는 2011년 K9 출시와 함께 당시 사령탑이던 선동열 감독의 차부터 오퍼러스에서 K9으로 교체했다.

프로야구 감독은 고독한 직업이다. 팀이 연패에 빠질 때는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구단버스가 아닌 개인 차량으로 먼 거리를 운전하기도 한다. 많은 감독들은 손수운전으로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한다. 그만큼 자동차는 감독들에게 이동수단이자 소중한 안식처이기도 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스포츠신문 6개사 후원...17일 여주 솔모로CC서 티오프



2017 축구인골프대회 '희망의 샷'

차범근·허정무·최강희·황선홍 등 레전드 총출동

2017년 한국축구는 월드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태극남자들은 평양에서 북한을 누르고 2019프랑스여자월드컵관문인 2018요르단여자아시아컵 본선 티켓을 따내는 목표를 향해있습니다. 5월에는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국내서 개최됩니다. A대표팀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3월 개막한 K리그는 완연한 봄을 맞았습니다. 클래식 12개 팀, 챌린지 10개 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가장 높은 고지를 향한 아름다운 질주입니다. K리그 각 팀의 도전은 늦가을까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전설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차범근, 허정무 등 레전드와 최강희, 황선홍, 서정원 등 K리그 사령탑들이 그라운드에서 아닌 필드에서 하나가 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전북현대, FC서울, 수원삼성이 주최하고 스포츠동아, 스포츠경향,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등 스포츠전문 미디어 6개사가 후원하는 '2017년 축구인골프대회'가 4월 17일(월) 경기도 여주 솔모로CC에서 개최됩니다.

축구인의 화합과 우정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축구인골프대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라운드에선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자들이 따뜻한 동료애를 나누는 화합의 무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샷' 못지않은 '샷' 실력을 마음껏 뽐낼 축구인들의 우정 어린 필드 위 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4월 17일(월) 낮 12시38분 티오프(오전 11시40분까지 현장 도착)
- 장소 : 경기도 여주 솔모로CC(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솔로로그린길 171)
- 참가비 : 무료(캐디파-그늘집 비용은 별도)
- 주최 : 한국프로축구연맹, 전북현대, FC서울, 수원삼성
- 후원 : 스포츠동아, 스포츠경향,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박유천, 남양유업家 사위 된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9월 결혼
작년 11월부터 교제...힘든 시간 함께 한 인연



박유천

한류스타 박유천(31)이 9월 세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결혼한다. 예비신부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씨.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두 사람은 9월 중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 <스포츠동아 온라인 단독 보도>

13일 연예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가을 한 지인의 모임에서 처음 만나 11월 말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황씨는 박유천이 지난해 사생활과 관련된 소송과 세간의 일부 오해 등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그의 곁을 지키며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을 싹틔운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결혼하게 된 것도 이처럼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덕분이다. 양가 역시 결혼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주위에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유천은 예비신부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후 바로 결혼하기로 했다"며 "(박유천이)평소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였다. 연예계 복귀보다는 당분간 결혼 생활에 집중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해 가요계 최정상에 올랐고, 같은 그룹 멤버였던 김재중, 김준수와 함께 JYJ로 활동했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 연기에 첫발을 내딛고 연기자로서도 입지를 넓혀왔다. 지난해 6월 성폭행 혐의로 잇따라 피소되면서 한류스타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5년 8월 입대한 박유천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8월 말 소집 해제된다.

이정연 기자 amnjy@donga.com